

필수요건 된 '댄스 챌린지'...신예 다이몬의 유쾌한 묘수

다이몬, 파격 헤어스타일로 눈도장
태양 연상되는 머리 활용 챌린지 고안
댄스 없이 상황극으로 "쉽고 강렬하게"
"뜨거운 반응 체감...신인에게 기회"

어느새 댄스 챌린지가 가수들의 활동 패키지처럼 필수요건이 됐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챌린지의 성격을 잃은 지는 오래다.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간편일수록 콘텐츠가 됐다. 이런 챌린지를 영리하게 활용한 신인 그룹이 있다.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로 눈도장을 찍은 신인 보이그룹 '다이몬(DXMON)'이다.

다이몬은 지난달 17일 데뷔한 SSQ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보이그룹이다. 15~20세 민재, 세이타, 태극, 히(HEE), 렉스(REX), 조(JO) 등 2세대 멤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뷔와 동시에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08년생 막내인 조는 그룹 '동방신기'가 지난 2004년 '트라이앵글(Tri-Angle)' 활동할 당시 최강창민이 했던 성게머리를 연상케 하는 헤어스타일링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빨간색 염색까지 더해져 단연 눈에 띄었다.

조는 데뷔 쇼케이스에서도 헤어스타일 관련 질문을 받고 "스타일링을 하는 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헤어 선생님이 직접 (가시들) 하나하나 세워주신다"고 고충을 털어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소화할 수 있을지 걱

정했는데, 거울을 보고 포즈 취하고 랩도 해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민재는 "어떤 특별한 헤어스타일이 와도 소화하겠다. 다른 멤버들도 앞으로 특별한 헤어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인의 이목 끌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전략만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란 쉽지 않다. 이에 다이몬은 챌린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2020년 가수 지코가 '아무노래'로 쏠아올린 댄스 챌린지는 당연한 수순이 됐다. 숏폼 시대의 최적화된 홍보 수단이라, 가수들 사이에서는 품앗이하는 것이 스케줄의 한 부분이 됐다. 음악 방송 현장에서는 타가수의 안무를 익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체 콘텐츠에서 챌린지 비하인드 영상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다이몬의 챌린지는 엄밀히 말해 '댄스' 챌린지는 아니다. 태양의 형상 같은 조의 헤어스타일 활용해 '햇님이 챌린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타이틀곡 '번 업(Bum Up)'을 배경으로 챌린지가 리듬을 타면서 립싱크를 하면, 조가 태양처럼 떠오르는 유쾌한 콘텐츠다. 다이몬은 "햇님이 챌린지는 새로운 해에 데뷔



를 하는 만큼 떠오르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고안했다. 조금 더 대중에게 쉽고 강렬하게 각인될 챌린지를 생각하다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안무를 익히는 어려움도 따르지 않아 선배 가수들도 여럿 참여했다. 활동 영역이 겹치는 (여자)아이들 미연, 제로베이스원 성한빈, 라이즈 성찬 등도 있지만, 비활동기인 김중국, 투애니원(2NE1) 산다라박, 비투비 이창섭, 에이핑크 윤보미 등도 함께했다. "선배님들이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신기하다고 하는 선배님들도 계셨고요. 산다라박 선배님은 '머리

망가질까 봐 어디 기대지도 못하고, 퇴근 후에 머리 감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릴 텐데 힘내라'고 하셨어요. 챌린지에서 제가 등장하기 전 타이밍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으셨는데요. 선배님들만의 스타일로 잘 보여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조)
다이몬에게는 인지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이몬을 모르면 K팝 팬들도 챌린지를 통해 팀과 노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멤버들은 "챌린지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소셜미디어와 음악방송에서도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다"고 체감했다. 그

리면서 "이런 챌린지 문화가 이름을 알려야 하는 신인으로서의 굉장히 감사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는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간혹 조의 머리 가시 수가 변동되는 것을 언급하는 댓글도 있다. "저의 가시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 걸 봤다. 앞으로 가시 수를 늘려서 오도록 하겠다"고 유쾌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더 열심히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은정, 추락한 스타의사... '수지맞은 우리'



그룹 '티아라' 출신 함은정이 의사로 변신한다.

KBS 1TV 일일극 '수지맞은 우리'는 추락한 스타 의사 '진수지'(함은정)와 무대뽀 초짜 의사 '채우리'(백성현)의 로맨스다. 수지는 정신과 의사로 방송가에서 섭외 1순위로 꼽힌다. 워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완벽주의자다.

우리는 실력있고 유머러스한 데다가 정의감까지 넘친다. 환자 이해와 신뢰가 최우선이다. 전직인 수지가 각종 스캔들에 휩싸여 곤두박질치자,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싶어 한다.

오현경은 우리 엄마 '오선영'이다. 한식당을 운영 중이다. 2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인생이 달라진다. 강병은 수지 동생 '진나영'으로 분한다. 아나운서에게 합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리포터로 활동한다. 승승장구하는 언니에게 질투와 분노를 터트리며 위험한 일을 벌인다. 신정윤은 해들병원 경영기획 본부장 '한현성'을 연기한다. 10여

년 전 수지와 캠퍼스 커플이었지만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한다. 수지를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태풍의 신부'(2022~2023) 박기현 PD와 '아모르 파티-사랑하라, 지금'(2021) 남선혜 작가가 만든다. '우당탕탕 패밀리' 후속으로 다음 달 첫 방송.

NCT 위시, 365일 듣고 싶은 행운의 주문

그룹 '엔시티 위시(NCT WISH)'가 데뷔 초입기에 들어갔다.

1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위시가 데뷔곡 '위시'로 소원을 향한 행운의 주문을 건다.

NCT 위시의 데뷔 싱글 '위시'는 이달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된다. 동명의 타이틀곡 '위시'와 수록곡 '세일 어웨이(Sail Away)'의 한국어, 일본어 버전 총 4곡이 실렸다.

특히 타이틀곡 '위시'는 올드스쿨 힙합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템포의 댄스 곡이다. 에너지 넘치는 훅과 서정적인 멜로디, 청량하면서도 감성적인 보컬이 조화를 이루며 벅찬 설렘을 전한다.

가사는 지금부터 시작될 새로운 미래에 '위시'를 담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NCT 위시의 포부를 이야기한다. NCT 위시가 그려갈 팀의 컬러를 보여줌과 동시에 기본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더불어 NCT 위시는 오는 21일 일본 도쿄돔



에서 개최되는 '에스엔타운 라이브(SMTOWN LIVE)' 무대에 올라 데뷔곡 '위시'를 최초 공개한다.

이효리 "그냥 인생은 독고다이... 위안 받으려 하지 마세요"



가수 이효리가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축하 무대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하시면서, 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수 이효리가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

교 국민대 졸업식서 축하...졸업하는 후배들 응원

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인연을 잠깐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위안 받고 또 미련 없이 자기 갈 길을 가면 된다"며 졸업하는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효리가 이날 졸업식 축하사에서 강조한 독고다이는 한자 특공대(特攻隊)의 일본어 발음이지만, 국내에선 특공대의 본뜻과 달리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로 통용된다. 이 낱어는 세간의 평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선택을 해온 이효리의 행보와 맞아떨어진다.

국민대는 이효리의 모교다. 그녀는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과 98학번이다. 자랑스러운 선배로 초대 후배들 앞에 선 것이다. 하지만 이효리는 연설의 사전적 정의인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위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을 짚은 뒤 "자기 주장이나 주의를 뒤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나에게서는 더 큰 울림이 있었다"며 자신은 연설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실제 비교적 짧은 5분 동안 스피치를 한 이효리는 "말에는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몸소 체득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다치고 많이 체득하게

요. 그래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밤 이날 읽은 글을 썼다는 이효리는 "제가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도 모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 귀담아들지 마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후 이효리는 학사모를 벗고 자신의 히트곡 '치티 치티 뱅 뱅(Chitty Chitty Bang Bang)'을 부르며 졸업식 현장을 콘서트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효리는 국민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다. 같은 해 그룹 '핑클'로 데뷔했다. 연예 활동 때문에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2006년 졸업했다. 이효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민대 축제에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효리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S.E.S'와 함께 아이돌 걸그룹 시대를 연 핑클의 주역이다. 2003년 첫 솔로 음반 '스타일 리시 이효리'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텐미닛'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뒤 솔로로서 입지를 굳혔다.

한동안 연예 생활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초 안테나에 새 동지를 들고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KBS 2TV '더 시즌즈-이효리의 레드카펫' MC를 맡고 있다.

아이유, '3단 고음' 넘어설 '쇼퍼'...DPR 이안 뮤비 작업

'블루밍'에 이어 '일렉트로-팝 록' 도전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U-이지은)가 자신의 히트곡 '블루밍'에 이어 '일렉트로-팝 록(Electro-Pop Rock)' 장르를 또 내세운다.

14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의 새 미니앨범 '더 위닝(The Winning)'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쇼퍼(Shopper)'는 강렬한 사운드의 일렉트로-팝 록 트랙이다.

이담은 "시원한 기타 사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트랜지션(조바꿈)들이 쉴 새 없이 귀를 자극한다"면서 "후렴구의 끊임없는 고음에서 아이유만이 가능한 범한 역량을 보여줄 곡"이라고 소개했다. 아이유를 상징하는 창밖 중 하나인 '3단 고음'을 넘어서는 실력을 보여주겠

다는 것이다.

'쇼퍼' 뮤직비디오 연출은 힙합 크루 '디피알(DPR)'의 디피알 이안(DPR IAN)이 맡았다. 이안은 지난해 10월 EP '디어 인세너티(Dear Insanity)'...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38위에 진입한 그는 뮤직비디오 디렉터이기도 하다. 태양, 로꼬, 송민호 등과 작업했다.

이번 뮤직비디오의 연출부터 편집, 후반작업 등 모두 DPR의 내부 작업으로 완성됐다.

디피알 이안은 '쇼퍼' 뮤직비디오에 출연도 했다.

이담은 이날 0시 소셜 미디어에 '쇼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게재했다. 어두운 밤, 마트



가 배경이다. 아이유는 깜깜한 매장에서 망원경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바라보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개진 사랑, 황금 야구 방망이 등 다양한 오브제가 나온다.

'더 위닝'은 오는 20일 오후 6시 음원 플랫폼에 발매된다.